「2012년도 유적보호활동」 실시

1. 장　　소 : 대구 욱수동·경산 옥산동 유적(대구시지노인전문병원 내 유적 보존구역)
2. 일　　시 : 2012년 10월 7일(일) 10:00~13:00
3. 참가인원 : 40명

우리 연구원은 지역 내 문화재 환경을 정비함으로서 지역 주민들에게 우리 문화유산에 대한 소중함을 일깨우고, 문화재 지킴이로서의 주도적인 역할을 하기위해 2012년 10월 7일(일) 대구 욱수동·경산 옥산동 유적 내 보존구역에 대한 유적보호활동을 실시하였다.

유적보호활동을 실시한 지점은 대구 욱수동·경산 옥산동 유적이 위치한 곳으로 대구시지노인전문병원 신축에 앞서 2000년 9월부터 2001년 10월까지 (재)영남문화재연구원이 발굴조사하였으며, 삼국시대 토기가마를 비롯하여 통일신라시대 돌방무덤石室墓과 고려~조선시대의 무덤이 함께 조사되었다. 그 중 삼국시대 토기가마가 조사된 일부 구역(약 341㎡)은 교육자료로 활용함과 동시에 지역민의 문화의식을 고취시키고자 보존정비구역으로 지정되었다.

대구 욱수동·경산 옥산동가마터는 근래 잡목이 우거진 상태로 방치되어있어 보존정비구역으로 지정한 목적을 저해하는 것으로 판단되어, 이번 유적보호활동을 실시하였다. 영남문화재연구원은 이러한 유적보호활동을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시행하여 지역 내 문화유적에 대한 소중함을 지역민에게 알리는 역할을 하고자 한다.

유적보호활동 중 전경

유적보호활동 후 전경

유적보호활동 사진

유적보호활동 후 단체사진